

## <바다로 출근 호텔로 퇴근>(가제) 中 <워케이션 빌런>(가제) 대본 일부

땀으로 상체가 흠뻑 젖은 채로 들어서는 진우, 헐떡이는 숨….

가령 “어떻게 오셨어요?”

진우 “오… 늘… (헉헉)… 등록… 한… (헉헉)… 김진우… (헉헉)”

“일단 물한잔만… (헉헉)

주희 네~~ /

진우 : 얼음 가득넣어서~~”

가령 : (약간 표정이 굳는다)

진우 : (얼음물을 들이키고)

“와~ 여기 넓고 좋네… 여기 샤워실 어디지?”

가령 (웬 반말?) “여기엔 샤워실이 없는데요?”

진우 “뭐? 샤워실이 없어… 와C… 황당하네… 여기가 부산아니요… 대한민국에 끄트머리… 제일 남쪽… 아니 이렇게 더운 곳에 손님들을 불렀으면 샤워실 정도는 마련해 놔야 하는 거 아닌가? 다들 서울에서 온거자나… 그럼 땀 날거고… 아니 이렇게 땀이 난 채로 어떻게 일을 하냐고… 나 이해할 수가 없네…

가령 : 손님… 지금 11월이고… 다른 분들은 모두 비행기나 KTX를 타고 오셔서 땀 흘릴 일이 별로 없는데요……

진우 : 아니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 서비스 직에 있으면 손님이 어떤 상황에 있던 예상하고 대비하는 그런게 있어야 하는 거 아냐? 에휴…(약간 한심하다는 듯 한숨쉬고)